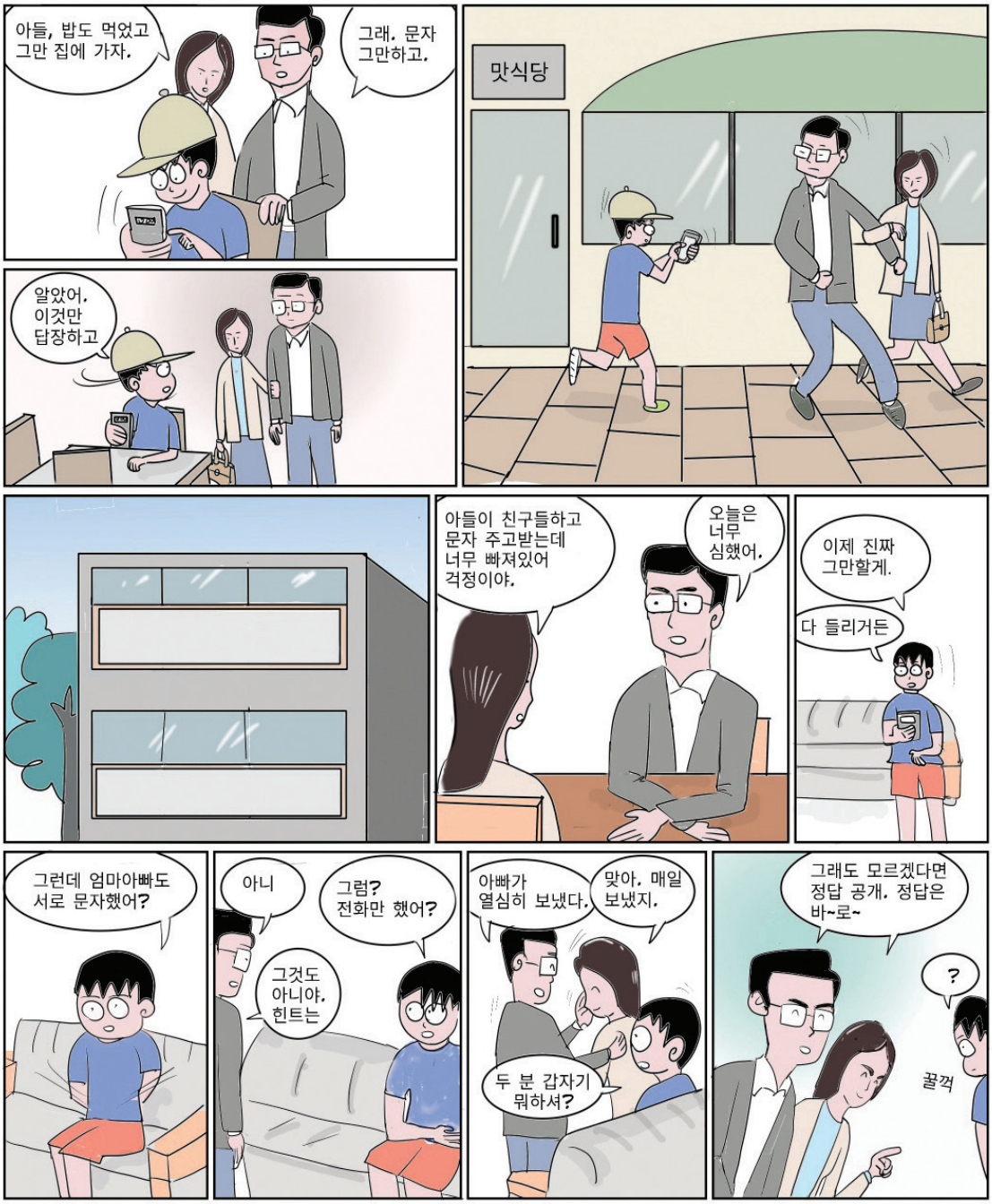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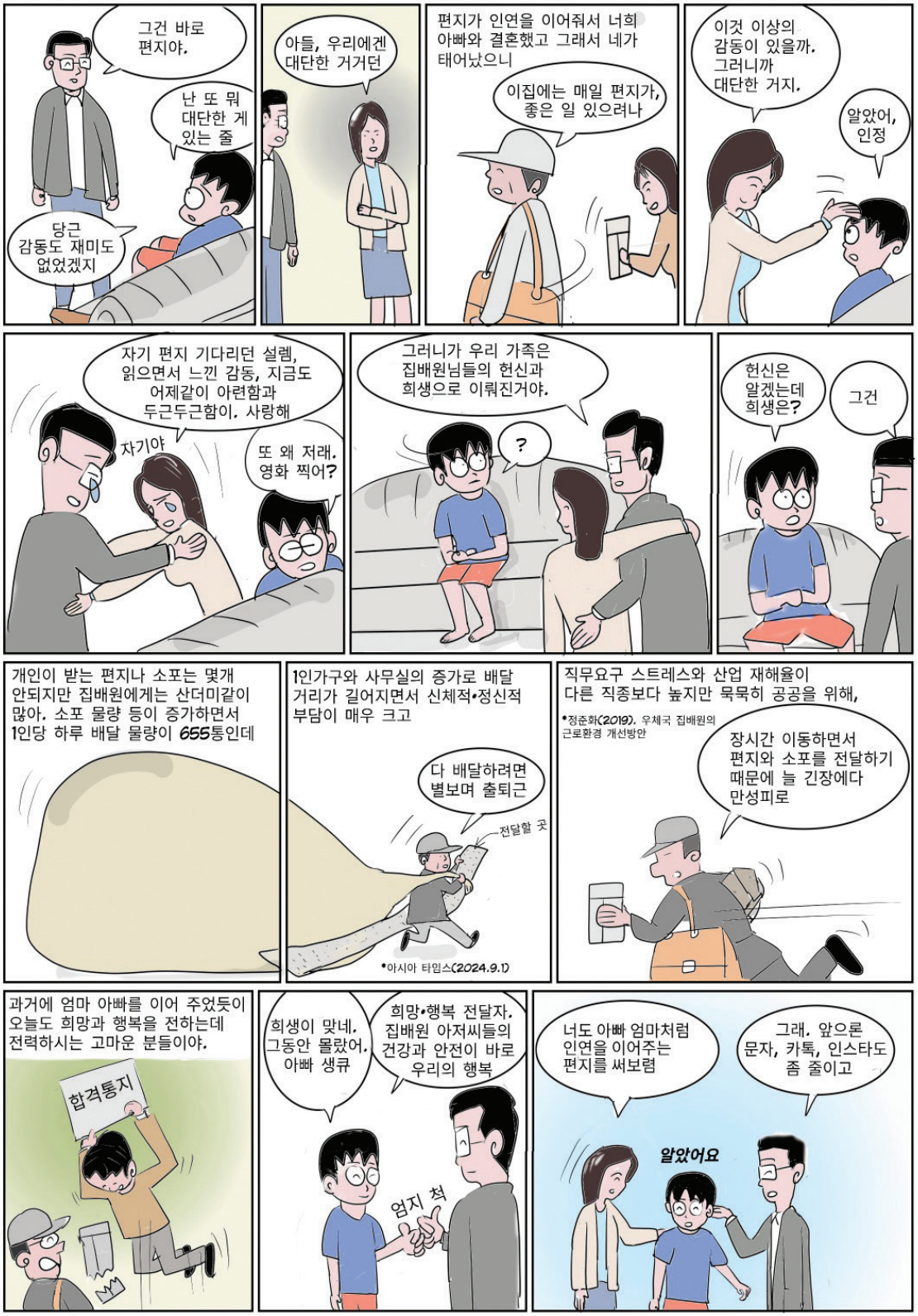
장시간 이동하며 편지와 소포 등을 전달하는 집배원, 정신적·신체적 긴장으로 극도의 피로감
다른 직종보다 직무 요구 스트레스와 산업 재해율이 높지만, 묵묵히 공공을 위해 헌신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집배원의 건강과 안전이 곧 우리의 행복

글·그림 정동섭




그건 바로 편지야.
난 또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당근 감동도 재미도 없었겠지
아들, 우리에겐 대단한 거거던
편지가 인연을 이어줘서 너희 아빠와 결혼했고 그래서 네가 태어났으니
이집에는 매일 편지가, 좋은 일 있으려나
이것 이상의 감동이 있을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알았어, 인정
자기 편지 기다리던 설렘, 읽으면서 느낀 감동, 지금도 어제같이 아련함과 두근두근함이. 사랑해
자기야
또 왜 저래. 영화 찍어?
그러니가 우리 가족은 집배원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진거야.
?
헌신은 알겠는데 희생은?
그건
개인이 받는 편지나 소포는 몇개 안되지만 집배원에게는 산더미같이 많아. 소포 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1인당 하루 배달 물량이 655통인데
1인가구와 사무실의 증가로 배달 거리가 길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크고
다 배달하려면 별보며 출퇴근
전달할 곳
*아시아 타임스(2024.9.1)
직무요구 스트레스와 산업 재해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지만 묵묵히 공공을 위해,
*정준화(2019). 우체국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장시간 이동하면서 편지와 소포를 전달하기 때문에 늘 긴장에다 만성피로
과거에 엄마 아빠를 이어 주었듯이 오늘도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데 전력하시는 고마운 분들이야.
합격통지
희생이 맞네. 그동안 몰랐어. 아빠 생큐
희망•행복 전달자. 집배원 아저씨들의 건강과 안전이 바로 우리의 행복
엄지 척
너도 아빠 엄마처럼 인연을 이어주는 편지를 써보렴
그래. 앞으론 문자, 카톡, 인스타도 좀 줄이고
알았어요